

이 자료는 2024년 10월 17일 朝刊부터	報道資料 (시흥상공회의소)	담당과	기업지원팀
		담당자	팀장 민지성 대리 이동규
		전화번호	031)501-5700
본 보도 자료는 시흥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shiheungcci.korcham.net)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목 : 2024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BSI) 조사

시흥지역의 4/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는 전 분기 대비 6포인트 상승한 '85'

▷ 23년 4분기(81)→24년 1분기(74)→24년 2분기(102)→24년 3분기(79)→24년 4분기(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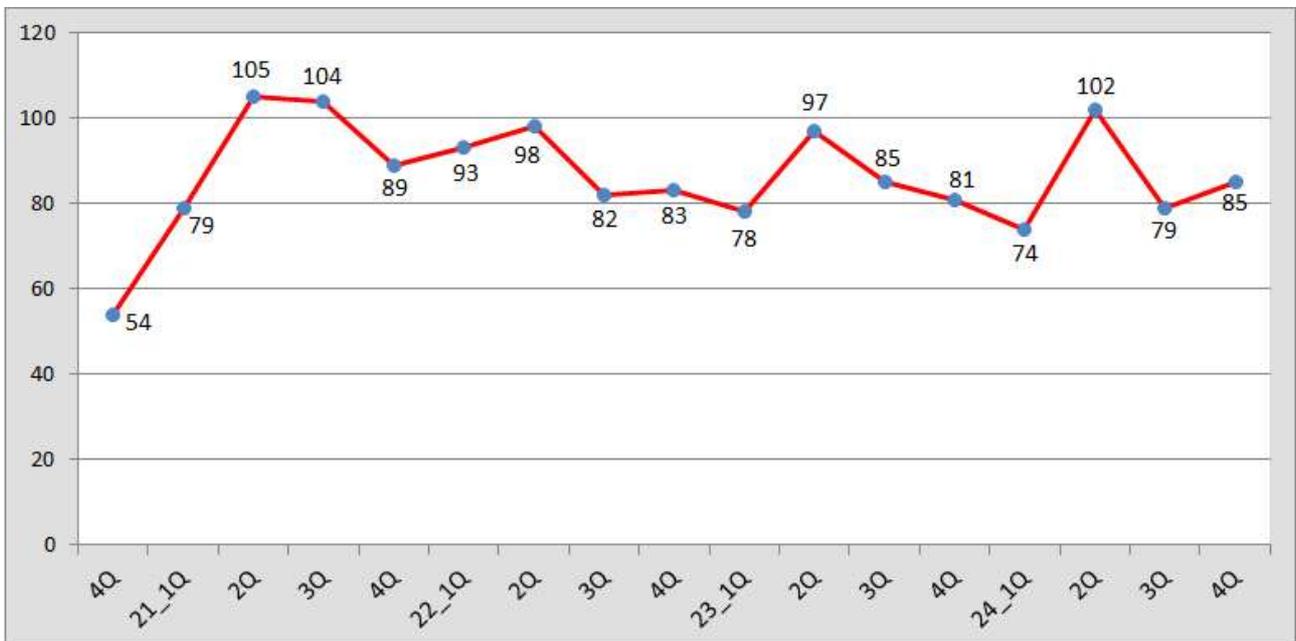
▷ 4/4분기 전망치는 대부분에서 기준치(100) 이하를 기록하며 부정적 전망

▷ 4/4분기 전망치 중 업종별로 자동차부품(100.0), 기계장비(91.7) 분야 순으로 높게 기록

□ 시흥상공회의소가 시흥시에 소재한 제조업체 7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4/4분기 BSI(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 4분기 전망치는 '85' 포인트로 전 분기 대비 '6' 포인트 상승, 전년 4분기(81) 대비 '4'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BSI는 100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이하는 부정적 전망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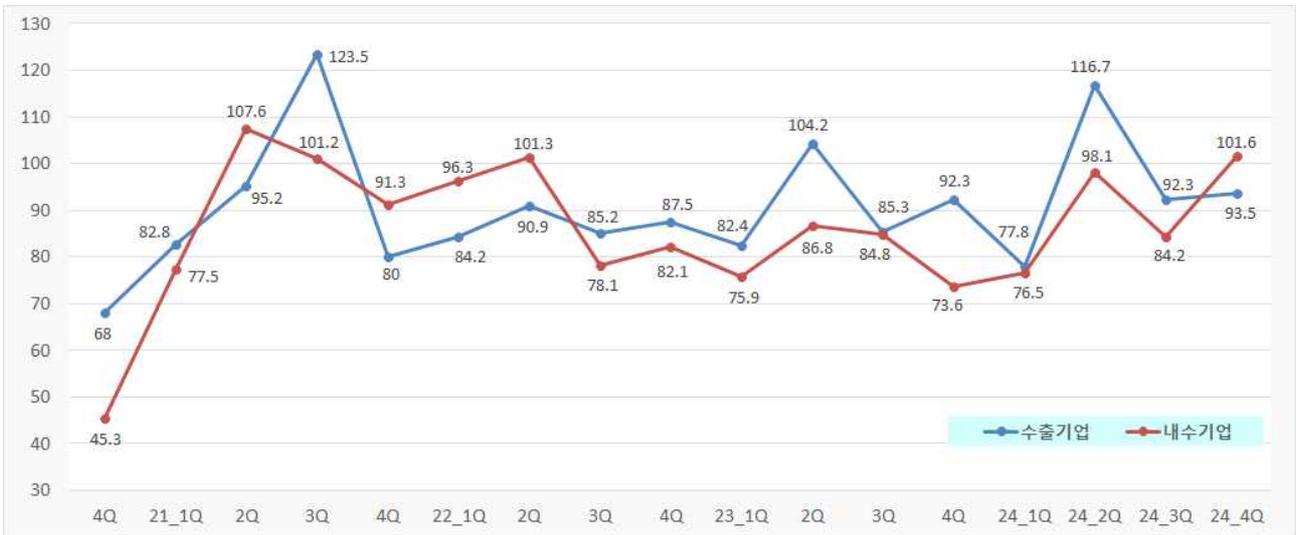
< 시흥지역 분기별 BSI 추이 >



< 항목별 시흥지역 BSI 동향 >

항 목	2024년 1/4분기		2024년 2/4분기		2024년 3/4분기		2024년 4/4분기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체감경기	61.0	74.0	72.0	102.0	80.3	76.1	83.3	93.2
매 출 액	79.0	77.0	72.0	105.0	85.9	80.3	89.2	101.4
영업이익	74.0	70.0	67.0	97.0	64.8	71.8	78.4	89.2

< 시흥지역 수출·내수기업 BSI 추이 >



□ 수출·내수 기업을 살펴보면, 수출기업(93)의 전망치는 경기 침체와 전쟁 등의 요인으로 3분기와 비슷한 수치를 보여 주었고 내수기업(101)은 내수 소비가 증가하여 기준치를 넘는 긍정적인 수치를 기록하였다.

< 기업 규모별 시흥지역 BSI 동향 >

항 목	2024년 1/4분기		2024년 2/4분기		2024년 3/4분기		2024년 4/4분기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전 체	61.0	74.0	71.7	101.7	79.0	87.3	89.3	93.5
대 기업	100.0	88.9	101.7	100.0	93.8	86.7	101.9	95.2
중소기업	63.5	70.6	71.7	101.7	83.1	79.7	87.5	97.2
수출기업	144.4	77.8	83.3	116.7	90.9	92.3	109.1	93.5
내수기업	67.3	76.5	71.7	98.1	86.3	84.2	87.3	101.6

- 기업 규모로 살펴보면, 전망치는 모든 구분에서 기준치(100) 이하를 기록하였고, 4/4분기 실적치 또한 대기업을 제외한 구분에서 기준치(100) 이하를 기록하였다.

< 업종별 시흥지역 BSI 동향 >

항 목	2024년 1/4분기		2024년 2/4분기		2024년 3/4분기		2024년 4/4분기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자동차·부품	38.5	107.7	90.9	118.2	100.0	90.9	94.7	100.0
철강	66.7	100.0	44.4	55.6	78.6	85.7	81.8	80.0
IT·가전	68.0	70.0	100.0	100.0	77.8	83.3	80.0	88.9
기계·장비	84.2	55.6	70.6	117.6	73.7	68.4	70.8	91.7
기타	76.2	66.7	71.4	100.0	91.7	75.0	89.3	92.6

- 업종별 전망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생산이 증가하면서 자동차·부품(100), 기타(92), 기계·장비(91)의 전망이 우세 하였고 철강(80)은 지난 3분기 철강경기 회복에 따라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상승하였던 전망치가 소폭 하락하였다.
- IT·가전(88)은 업황 부진이 소폭 해소되면서 경기 전망 수치가 상승하였고, 대내외 리스크 중 내수 소비 증가, 원자재 공급 안정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 올해 4분기 사업 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위험 요인으로는 ‘내수 소비 위축(50%)’, ‘수출국 경기침체(24%)’, ‘유가·원자재가 상승(12%)’, ‘고금리 등 재정부담(6%)’, ‘환율변동성 확대(4%)’, ‘기업부담법안 등 국내정책이슈(1%)’, ‘기타(1%)’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지속되는 지정학적 리스크(미·중갈등, 러·우전쟁, 중동분쟁 등)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큰 영향 없음(55%)’, ‘일시적 실적 저하(35%)’, ‘경쟁력 저하 수준(6%)’, ‘일부 반사이익(2%)’ 순으로 조사되었다.
-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주로 경험한 피해로는 ‘에너지·원자재 조달비용 증가(30%)’, ‘환율변동·결제지연 등 금융 리스크(22%)’, ‘원자재 수급 문제로 생산 차질(13%)’, ‘해외 시장 접근 제한 및 매출 감소(10%)’, ‘현지 사업 중단 및 투자 감소(9%)’, ‘재고관리 차질 및 물류비 증가(9%)’, ‘기타(3%)’ 순으로 나타났다.
-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기업 운영에 발생한 변화로는 ‘해외조달 부품·소재의 국내조

달 전환(29%)', '기존 수출시장의 신규 대체시장 발굴(29%)', '해외 생산시설 축소 또는 철수(24%)', '대외 지정학 리스크 대응조직 신설(16%)' 순으로 응답하였다.

- 향후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업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에 대해서는 '지금 수준과 비슷할 것(41%)', '예측 불가능(33%)', '지금보다는 완화될 것(18%)', '더욱 빈번할 것(5%)' 순으로 나타났다.
-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대응 필요해 검토중(85%)', '대비 필요하나 마련 못함(12%)', '매우 필요, 대응책 이미 마련(2%)' 순으로 조사되었다.
-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운영에 있어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했거나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용절감·운영효율성 강화(44%)', '대체시장 개척 및 사업다각화(27%)', '공급망 다변화 및 현지 조달 강화(20%)', '환차손 등 금융리스크 관리(6%)', '글로벌 사업 축소(1%)' 순으로 나타났다.

조 사 개 요

- 조사대상 : 시흥지역 제조업체 74개 사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호전표시 업체 수 - 악화표시 업체 수) ÷ 총 유효응답 업체 수] × 100 + 100
- BSI의 기준치는 100, 100 초과는 호전예상 업체가 악화예상 업체 보다 많음을 의미, 100 미만일 때는 반대임.
- BSI전망치는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이며, 실적치는 현재 분기의 실적 추정치임.
- 본 자료는 응답 업체의 조사표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대기업과 수출기업은 응답 업체 수가 적어 BSI의 대표성이 낮음에 유의바랍니다.
- 본 자료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 필요시 시흥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501-5700)